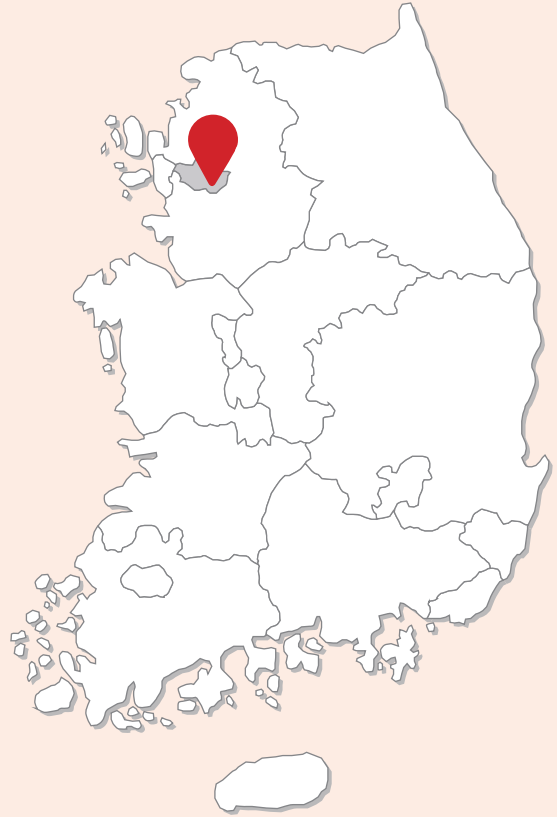


“수시전형의 변화를 살피는 데 유용해요”

거주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녀	중3, 초6
구독 기간	2년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나요?

작년 초에 〈내일교육〉이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구독을 신청했어요. 입시는 늘 변화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열심히 읽어보고 있어요.

주로 눈여겨보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가서 주간지를 탐독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수시 합격생 인터뷰 기사는 챙겨 보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우리 아이는 따라가기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대입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수시전형의 변화를 살피고 있어요.

독자에게
물는다

취재 김기선 리포터 quokka@neel.com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고민은?

고교 선택이죠. 새 대입 제도가 시행되면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일반고 중에 어떤 고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가 고민입니다. 4, 5월이면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되고, 가을이면 과학고·자사고 전형이 나올 텐데요. 특목고 진학이 좋을지, 일반고가 좋을지 현재 입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학생부를 잘 관리하면서 충분히 고민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아직 대입까지는 3년이 남아서 입시 관련 기사보다는 학생들 진로나 컨설팅에 관심이 있어요. 고입을 앞두고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컨설팅받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

Reporter's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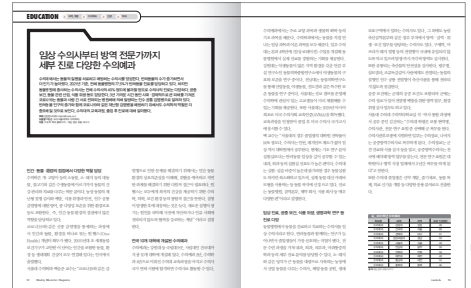
2028 새 대입 제도가 적용되는 중3 학생들에게 고교 선택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8 대입 제도 개편과 대입 전형 전망'을 주제로 한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대학의 평가 방향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28호 '고교학점제 기반 학생부 + 수능 2028 대입 사실상 수시·정시 통합'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입상 수의사부터 방역 전문가까지 세부 진로 다양한 수의예과

"아이가 동물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어 수의예과 기사를 유심히 봤어요. 특화된 대학과 생소한 학과도 다양하게 소개해주셔서 늘 도움받고 있어요."



WEEKLY THEME_ 2028 대입 개편에 고민 커졌다? 중3 위한 고교 선택 가이드

"대입 변화 때문에 고교 선택이 더 어려워요. 고교 선택의 기준점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포인트를 짚어줘 도움이 돼요."